

모든 것이 '업' ... 석씨 멸망하고 유리왕 지옥에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3)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멸망시키다(하)

“석씨 무리가 많기도 하구나. 모두 발만 땅에 파 묻고, 사나운 코끼리로 밟아 죽이도록 하라.”

성문이 열리자 유리왕이 말했다. 그리고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을 뽑아 처소로 데리고 갔다. 이때 마하남이 왕을 따라오며 간청했다.

“내가 지금 연못 속에 들어갈 테니 내가 물속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석씨가 마음대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물에서 나오거든 뜻대로 그들을 죽이시오.”

유리왕이 마하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하남은 이내 물밑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나무뿌리에 매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동안 성안에 있던 석씨들은 다투어 도망갔다. 유리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마하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구나.”

병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마하남이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리왕은 마음이 웅지 개운치가 않았다. 유리왕은 외조부로 알고 있는 마하남의 죽음을 통해 자신 또한 석씨의 가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고, 외조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다.

“나의 외조부께서 돌아가셨구나. 친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다니, 친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던 말인가...”

하지만 일은 이미 었지른 물이었다. 유리왕이 죽인 석씨가 9,990만 명이었으니, 피가 흘러 감을 이루었다.

유리왕이 처소에 돌아와 끌고 온 500명의 석씨 여인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지어비이다.”

유리왕이 한 석씨 여인을 끌고 가려하자 여인이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종의 자식 놈에게 몸을 주겠느냐?”

사실을 알게 된 난 유리왕은 진노하여 그 자리에서 여인을 잡았다. 그러자 5백 명의 석씨 여인들 모두가 유리왕을 꾸짖었다.

“누가 제 몸을 종의 자식에게 주겠느냐?”

다육 화가 난 유리왕은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을 모두 잡하고 사위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유리왕의 형인 기타 태자는 궁중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돌아오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유리왕이 기타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석씨 종족들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기생들과 놀 정신은 있고 왕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

기타가 말했다.

“듣기는 하였으나 저는 중생을 멋대로 살해할 수 없읍니다.”

화가 난 유리왕이 그 자리에서 기타를 죽였는데, 부처님께서 보시니 기타는 삼십삼천에 나

었다. 이때에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은 여래의 명호를 부르며 여쭙었다.

“여래께서는 석씨 종족으로서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는 데도 어찌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다문천왕에게 말했다.

“여인들이 굶주린 날이 오래된 것 같구나.”

다문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이내 하늘의 밤(天食)을 차려 모두를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苦)·집(集)·멸(滅)·도(道)를 말씀하시니, 여인들의 법안이 깨끗해졌다. 여인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가 천상에 갔다.

부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가 성안을 바라보니

을 데리고 강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 때 갑자기 크게 천둥이 치면서 때 아닌 구름이 일어나 폭풍과 소나기를 내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일시에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왕은 살아 있는 채로 아버지옥에 들어갔다. 다시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 궁과 성을 다 태워 없애 버렸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석씨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왕사성 안에 고기를 잡는 마을이 있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먹으며 연명했다. 다행히 마을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제법 있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삽화 · 강병호

성이 불길에 휩휩 타오르고 있었다.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옛날에 비구들과 함께 이 안에서 설법을 하였는데, 이제는 텅 비어서 백성들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사위국의 기원정사로 돌아가셔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리왕과 그의 병사들은 지금부터 7일 후에 모두 죽고 없으리라.”

유리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는데, 도반이자 신하인 범지는 여전히 이롭지 못한 말로 유리왕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렇 리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그저 지금처럼 왕좌에 계시면 됩니다.”

드디어 7일째 아침이 되었다. 유리왕은 무사한 자신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모든 병사와 시녀들

먹기 시작했다. 연못의 물고기에는 두 종류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이 구쇄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다설이었다. 두 물고기는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물에서 사는 중생이라 마른 땅에서는 살 수 없는데도 이 백성들이 모두 와서 잡아먹는구나.’ 라고 했다. 마을에 여덟 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비록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으나 함께 기뻐했다.

왕사성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석씨 종족이요, 구쇄라는 고기는 지금의 유리왕이다. 다설이라는 고기는 범지이며, 여덟 살 아이가 바로 나이다. 나는 말리지 않고 함께 기뻐했기에 두통을 앓는데, 마치 돌로 누르는 것과 같고, 또 수미산을 이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함의 법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었다. (《석가필죄경》, 《장아함경》, 《법구비유경》에 나온다.)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⑬



타산지석

일타 스님과의 추억 1-빈부의 구별

일타 스님께서 부산 영도 백련암에 보살계를 설하러 오셨을 때다. 법문을 마치고 스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택시로 스님을 모시고 오는 길이었는데, 계속 누군가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했는데 그 차는 우리 집까지 따라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됐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채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우리 차를 따라온 낯선 보살도 함께 있었다.

나는 주인인 관계로 손님 대접하느라 범문도제대로 듣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했다. 꽤 늦은 시간까지 행복한 법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다. 그 낯선 보살이 스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오늘은 대원성 보살집에서 묵을 테니 그냥 가세요.”라며 그 보살을 보내셨다.

이튿날 아침, 그 낯선 보살이 스님을 모시러 다시 왔다. 전날 동행했던 혜인 스님과 내가 동행했다. 도착한 그 보살의 집은 어마어마한 큰 저택이었다. 2층의 방 하나는 교실처럼 넓었고, 스님의 병풍도 보였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그 보살이 나를 보자고 하더니 큰 소리로 따져 묻기 시작했다.

형편 어려운 이웃 만나면 더 '겸손'

늘 어딘가에 나보다 큰 마음 있어 '마음' 잘 가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

“어제 내가 당신 집으로 따라간 건 스님을 넓고 조용한 우리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는데 당신이 눈치 없이 스님을 모시는 바람에 스님이 좁고 불편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도로서 스님을 세심하게 살피주세요.”

처음 본 그 보살은 매우 인종아하면서 나무라듯이 말했다. 그 때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 혜인 스님께서 그 보살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보세요 보살님! 크고 넓은 집으로 스님을 모신다고 스님을 위한 것입니까? 어찌 형편 좀 좋다고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대원성 보살은 우리 문중이 다 잘 알고 스님을 진실로 모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룻밤 머무는 곳에 크고 작은 분별을 둔단 말입니까?”라며 그 보살을 나무랐다. 나는 당황스럽고 그 보살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보살이 바로 내게 사과를 했다. 나는 그 날 이후부터라도 그 보살이 했던 실수를 하게 될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다. 특히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꼭 그 날의 일을 떠올리며 '겸손'에 대한 생각을 하곤 한다.

일타 스님과의 추억2-를 쓴 생각하는 스님 1969년 여름이었다. 불교신문에 근무하던 김숙

현이라는 친구가 해자라는 친구와 함께 부산엘 왔다. 사흘 째 되던날, 우리는 해인사에 가게 되었다. 해인사를 처음 와본 서울 아가씨들은 말로만 들던 해인사를 보고 신기해했다. 일타 스님이 계시는 극락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스님과 차담을 하고 우리는 스님이 내어주시는 방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 절없는 우리 일행은 평소엔 스님을 편히 만났던 것만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떠들며 수다를 떨었다. 그 때 스님께서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절집에서는 조용조용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밤 9시면 모두 자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부끄러웠지만 다시 떠들며 수다를 떨었다. 몇 년 후 스님이 그 때 많이 남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아침에 대중과 공양하지 못하고 등산을 버너로 손수 밥을 지어주셨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었다. 아침 공양 후 우리는 스님께 인사 올리고 절을 나섰다. 아랫마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자 스님이 뛰어내려왔다. 스님이 주셨다며 차비를 주셨다. 우리는 스님이 지난 밤 우리들 때문에 곤란해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스님이 주신 차비를 받아들고 올라왔다. 이후 우리 결혼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였다. 스님이 지옥암에 머무실 때였는데 스님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때 극락암에 왔을 때 대중들 눈치가보여 더 있다가라 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지옥암에 놀러오라는 편지였다. 그리고 이번엔 편히 오래 지내다 가라는 말씀이었다. 그 때서야 극락암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때 스님이 겨우 마흔이었을 때이니 아래래 큰스님을 눈치를 얼마나 보셨을까 생각했다. 항상 어딜 가든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마음이여, 마음이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온 몸 다 뒤져도 마음이란 찾을 수 없는데, 모두가 네 맘 내 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안고 있으니 내 몸보다 더 큰 마음자리이지 않은가. 어찌 팔만사천 가지만 있을까. 수 억만 가지의 물체와 색을 알아보는 그 신기한 마음이여.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실은 소리도 용서가 되지 않고 보글보글 속을 꿰뚫는다. 풍아서 데굴데굴 웃다가도 슬픈 소식 앞엔 한 없이 나약해지는 사람의 마음. 파도의 물결도 똑같은 바닷물이거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파도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건 구름 같은 생각일 뿐, 마음은 언제나 하늘 같이 변함이 없음일세. 몸이 마음을 안고 살지만 마음이 몸을 부리고 살지 않는가.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어 참된 '나'가 되어 살아야 지혜로운 삶일 터. 장미의 향기가 되고 여름철 수박이 되어 형체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인연마다 함께 나누어 살며, 보살이 되고 싶이라. 부산 연꽃모임회장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